



조리사(조리원) · 영양사 · 행정 · 교무 · 사서 · 과학 · 특수교육 · 전산 · 유치원 · 방과후업무 등에 종사하는 울산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준)

■ 발행처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준)
■ Fax : 052-248-2679 / 052-700-8009

■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226-6 3층
■ E-mail : junsul4444@hanmail.net

■ 문의 : 052) 248-2678, 010-9235-5162
■ 발행일 : 2011. 04. 11 ■ 2011-01호

임금인상 4%+명절휴가비 20만원=5.1% ? 돈은 줄이고 생색만 내는 교과부를 규탄한다

현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은 기능직 공무원 10급(혹은9급)1호봉의 21배이다. 이에 근거하면 약 35%정도 임금인상이 되어야 하는데 4%만 인상한 것은 명백한 취업규칙 위반이다. 근로기준법 제 94조에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준)은 지난 2월 25일 교과부의 처우개선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우리는 기본급, 원상회복(기능직 10급 1호봉의 21배지급)을 위한 전국적인 서명운동과 규탄집회, 소송 등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서고 있다.

울산 처우개선안

근속년수수당	근속3년이상	6년이상	9년이상	12년이상	15년이상	18년이상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명절휴가비	연 2회(추석, 설)×100,000 = 200,000					
맞춤형복지	300,000 (보험120,000포함)					

교과부는 2월 24일 '16개 시도 교육청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합의안'을 위와 같이 발표했고, 울산교육청은 3월 7일 처우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합의안은 올해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5.1% 임금인상에 장기 근무 가산금과 명절휴가비를 포함시켜 실제로는 4% 인상만 그친 것이다. 5.1%로 연봉을 맞춘 척하며 임금도 줄이고 생색도 내자는 눈속임인 것이다. 교과부가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처우를 개선

하고자 한다면 이런 눈속임 계산법으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우롱하지 말고 진정한 처우개선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뭉쳐야 한다.



우리가노동조합으로 뭉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노동조합으로 하나가 됩시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노동조합으로 하나가 됩시다!

교원업무보조원, 행정사무원, 전산보조원, 과학실험보조원, 특수교육보조원, 유치원학급업무보조원, 체육코치, 영양사, 조리사, 조리보조원, 사서, 강사, 인턴, 사감으로 불리는 우리는 비정규직입니다.

전교조가 없었을 때 학교는 교장 1인의 왕국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었을 때 노동자는 노예로 기계로 취급받았습니다.
노동조합이 없었다면 우리사회 정의와 진보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활동 엿보기



전국학교비정규직 대전지부(준)을 비롯한 충남, 충북에서는 조리종사원 중식비면제 책임있게 해결할 것을 교육청에게 요구하고 있다. / 2011. 4.7



전국학교비정규직 광주지부(준)에서는 교육청과, 학교(학교장, 행정실장)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 2011 4.4~

교사들에게 전교조가 있듯이 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게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있습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단일한 조직으로 힘을 모아 우리의 권리를 찾읍시다!